

탄핵국면과 헌정개혁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2024년 12월 3일 수요일 밤에 벌어진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던 비상계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남남갈등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의 주장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거부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찬성과 반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행정과 사법에 대한 야당의 입법독주 등과 이의 타개책으로 선포되었다는 비상계엄은 얼추 우리 속담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 격으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비상계엄이 초래한 우리의 정치·사회현실은 어둡고 불행하지만 현시점에서 국민 서로가 숭구쳐 오르는 실망과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자성하면서 대

한민국이 가야만 할 길을 모색해보자. 필자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그동안 특히, 문재인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사회엔 정치가 보이지 않고 정쟁과 투쟁만 난무한 듯하다. 정치란 내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려 10여 년에 걸쳐 반대세력과 소통하면서 설득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에 인색한가? 이는 아마도 우리 헌법, 정치, 선거제도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우리 헌정 및 선거제도에서는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치를 때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양당제도에 이분법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비난한다. 이런 구도에서 정치의 역할은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되고, 정치인들 역시 배타적 진영논리에 빠져 이전투구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비상계엄이라는 불행한 돌발사태와 탄핵소추라는 민주적 요구를 승화시킬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1987년 전·후 때론 목숨의 위협과

투옥을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그런 위험이 사라진 이후 매번의 대선국면마다 우리는 의회, 선거, 정당제도를 바꾸자고 간절하게 외쳐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이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까?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제도와 헌정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 협조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주도의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를 위한 개혁 추진논의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제를 공고하게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선거구제도로 선거법을 바꾸어 국정 수행에 정당 간 자연스러운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표라도 많은 쪽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프랑식의 결선투표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도 요구된다. 끝으로,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여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책임 및 소신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때아닌 선거 풍년



김연세
(정책사회부)

우리 국민은 작년 4월 총선을 마쳤다. 그 이후 전국단위 3대 선거가 2년 넘게 휴지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원래 다음 선거는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였다. 대통령은 후년에 뽑는 수순이었다. 상황은 급변했고 대선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된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쟁취한 직선제 이래 처음으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지난 87년 대선부터 8차례 모두 0007년 아니면 0002년에 치러졌다. 올해부터 연도의 끝수는 5 또는 0으로 바뀐다.

이런 가정하에 2030년까지 선거관은 정

신없이 돌아간다. 2025년 대선에 이어 2026년 지선, 2028년 총선이 잡혀 있다. 이어 다음 대선과 지선이 2030년에 함께 실시된다.

각 당 전당대회를 비롯해 경선, 후보 선출, 선거운동 기간 등을 포함하면 향후 5년간 그야말로 '전폭 물갈이'의 시대가 도래한다. 정당과 유권자가 사실상 1년에 한 번 꼴로 전국 투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임기 5년 단임제가 유지될 경우에 해당된다. 4년 중임제 또는 내각책임제론이 대두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개헌이 필요하기에 87년도와 같이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는 시나리오다.

올해엔 그간 인기 없던 재·보궐선거도 관심을 끌 수 있다. 지난 2022년에 선출된 시·도지사 일부가 올해 대선에 출마하면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재보선이 요구된다. 과거 시한에 임박한 지자체장의 사퇴

로 인해 1년 넘게 공석이 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국회의원은 대권 도전 시에도 사퇴 의무가 없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2025년은 동·하계 올림픽도, FIFA 월드컵도 없는 해다. 구름이 담 넘어가듯 요할 뻔한 뱀띠 해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해로 변신했다. 행여 대선이 다른 해로 밀리는 일이 생긴다 해도 나라가 조용할 리 만무하다. 아니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다시 또 벌어지지 모른다.

기자는 육군병장 시절 생애 첫 대선 한 표를 행사했다. 내무반 후임병들과 함께 다녀온 부재자투표 전후, 각 지지 후보에 대해 갑론을박을 주고받았다. 당시 계엄령이 내려졌다면 우리 무슨 얘기들을 나눴을까. 지금 군복무 중인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2024년 12월 3일 이후 그때의 기억이 새롭다. /세종=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3일 (음 12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자식이 능력을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하다. **48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 쓰자. **60년생** 극심한 경쟁은 패배로 온다. **72년생** 연인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좋으나 지출이 과다하다. **84년생** 지금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 37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니 우선 할 일을 찾아보자. **49년생** 정신적 지주는 공부에서. **61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73년생** 욕심 많은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본들. **85년생** 삶이 몹시 지루하다.
- 38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0년생** 창의력이 번뜩 빛난다. **62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74년생** 남의 말을 사들여 가지 않으니 구설에 신경 쓰지 마라. **8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 39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51년생** 자신이 가는 길이 최선이라 믿어야 한다. **63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75년생** 내 발등을 찍는 것은 남이 아닌 내 도끼. **87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 40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방중에 돌아다녀 본들 누가 보겠는가. **52년생** 허릿간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64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76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마라. **88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길 듯.
- 41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53년생**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5년생** 선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라. **77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해야만. **89년생** 손재주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도 좋다.
- 42년생** 병도 약도 다 내 얘기 나름이니 신중하게 처신. **54년생** 다툼이 생기니 말조심하자. **6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78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9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 했지만.
- 4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5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67년생** 인색하다가 만사지탄(晩時之歎)이 되지 않도록. **79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91년생** 슬픔에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로 달래보는데.
- 44년생**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리지 않는다. **56년생** 길이 멀어도 시작하자. **68년생** 투자는 시기가 아닌 듯. **80년생** 아첨하며 마음이 혼란하니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92년생** 급한 마음에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 45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57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69년생**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 **81년생** 비운 뒤에 땅이 굳으니 신념을 갖고 실천하도록. **93년생** 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발목을 잡힌다.
- 46년생** 투자하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58년생** 가는 사람도 진정 잡아야 할 때가 있다. **70년생** 지나친 절약으로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82년생** 좋아도 금방 달려들지 마라. **94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한다.
- 47년생**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도사가 되었다. **59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다. **71년생** 늦은 재혼은 백두어신(白頭如新). **83년생** 내 영역을 넓히는 것은 실력이 밑바탕. **95년생** 인생사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김상회의四季 속성기도 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우환이나 시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몹시 황망하고 당황하여 오히려 잘못된 결정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한 것은 이런 설상가상의 실수를 막을 수 있음이다.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일상사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안에 따라 해결방도를 찾는 것이 순서다. 그러한 와중에 뭉개 마음에 답답하고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기도만한 방편이 없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본다. 기도는 우선 숨을 고르게 한다. 급하게 흘러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러한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의지를 확립해주시기도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뜻하는 바대로 기운을 부르는 힘이 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이 화엄경의 종지처럼 염력(念力)을 모으는 것이 기도다. 물론 참된 기도의 기본원칙은 스스로 바라는 바가 청정해야 한다. 여기서 청정이란 기도의 결과가 자신에게도 좋지만 타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럼 누군가는 묻는다. 시험 발원처럼 내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니 해가 되지 않겠냐고? 이것은 바른 비교가 아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차질없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력이 부족함에도 나보다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떨어지고 대신 내가 되게 해 달라는 염치없는 욕심과는 다른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럴 때 속성기도가 있다. 하심하며 스스로 마음을 정하게 하고 백팔 배, 천 배, 더 나아가 삼천 배를 해보시라. 어찌해야 할지 마음에 답이 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결함형 �도쿠 153문제

결함형 �도쿠110 중급스도쿠 120

QR코드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8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